

## 산골(散骨)에 관한 질의응답

### ㉓ 자연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라면, 자연에서 나온 사람을 다시 자연에 맡기는 산골 행위는 괜찮은 것 아닙니까?

유골을 소중하게 모시지 않고 뿌려 버리는 산골 행위는 자연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을 자연 안에만 얽매어 계시는 분으로 축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골은 자연주의 사상의 표현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초월적이며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정신 현상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현상과 그 변화의 근본 원리가 자연이나 물질에 있다고 보는 철학적 체계를 자연주의(自然主義, naturalism)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연주의는 자연을 유

일한 현실로 간주하는 입장으로서는 그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을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시기에 자연을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자연과 물질 자체가 하느님일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자연과 물질은 하느님에게서 만들어진 것일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느님께서는 자연과 물질을 움직이시되 그 자연과 물질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산골은 하느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교의 부활 신앙도 부정하는 자연주의 사상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교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허무한 것인데, 이 세상이 아니라 저세상에 희망을 두고 있는 우리가 죽은 이의 유골을 세상에 남겨 두지 않고 흩뿌리는 산골이 왜 잘못되었나요?

사랑하는 이의 유골을 흩어 버리는 행위는 세상을 조금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세계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골은 세상이 덧없어 유골을 보관하지 않고 버린다는 허무주의적 표현으로 오해될 여지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는 허무주의(虛無主義, nihilism)는 근대를 이끌어 온 서구 이성주의와 합리주의가 위기를 겪은 다음에 생긴 것으로,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허무로 돌리는 풍조라 할 수 있습니다. 허무주의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인생은 다만 한시적인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감각과 경험의 기회에 지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지나가고 찰나적이라고 설명됩니다. 허무주의자들 중에는 절대적인 진리나 도덕이나 가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하느님까지 부정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세상에서 자라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저세상에서 영원한 삶에 이르게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세상은 허무하기만 한 덧없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게 하는 소중한 과정이고 일부이기에 세상이 덧없어 유골을 뿌리는 산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